

공정위, 정유4사 카르텔 감시 강화

가격공개로 석유제품 담합 우려 ... 태스크포스 구성해 움직임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기업별 가격 공개를 계기로 석유제품 시장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원 부위원장은 5월11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유4사의 가격 공개가 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지만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있고 가격담합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11>